



주일에배 Sunday Worship

- 1부: 오전 10시
- 사회/설교: 서일원 목사
- 2부: 오전 11시 30분

사도신경 다같이

찬 양 다같이

1. 주는 완전합니다
2. 주가 일하시네

기 도 다같이

- ① 깨어 기도하며 세상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② 참된 지혜의 길을 발견하여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소서.
- ③ 믿음의 확신 위에 든든하게 신앙의 기초를 마련하게 하소서.
- ④ 교회가 교묘히 파고드는 사탄의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 ⑤ 세상을 향해 소통하되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게 하소서.

성경봉독 서일원 목사
마태복음 5장 6절 (신약 p.5)

설 교 설교자
“복된 자 (4)”

현 금 다같이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광 고 사회자

축 도 서일원 목사



수요일에배 Wendsday Worship | 수요일 오후 7:00

- 찬양과 중보기도
- 말씀 나눔



목회자 코너 Pastoral column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예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마 5:6).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으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양용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정훈택),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관련되는 것’(도널드 A. 헤그너) 등으로 그 내용이 다양하고 해석 및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양한 사정을 아시고, 단편적이고 협소한 “의”가 아니라, 성령님과 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풍성하게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간 이후 다양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대-바사 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의연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었습니니다. 그는 하루 세 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초반 영국 청교도 목사였던 아이작 암브로스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도 본래의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예수를 바라보라 1, 68). 우리의 목적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일 등을 위해 삶을 드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고대하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아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맘몬’(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창 12:3), - 이스라엘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데이빗 웬함 외, 『복음서와 사도행전, 311』). 이스라엘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이 일을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간직하며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제목 Prayer

I. 공통기도제목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여러 상황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3.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Trenčín 교회 - Gabriel Gajdoš 목사

II. 주간기도제목

일	주제	기 도 제 목
13일 (주일)	교회	1.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돕도록 이끄소서. 2.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 새로워지는 교회되게 하소서.
14일 (월)	전도	1.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 영혼을 향한 공활한 마음과 열정을 잃지 않게 하소서.
15일 (화)	나라	1.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낙담하고 절망하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2. 분열과 혼란이 사라지고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소서.
16일 (수)	가정	1. 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구체적인 상황들을 인도하소서. 2. 가족이 사랑으로 연합하는 관계를 이루어 든든하게 하소서.
17일 (목)	슬로박	1. 슬로바키아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2. 슬로바키아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영육에 강건하게 하소서.
18일 (금)	기본 신앙	1. 매일 성경읽기와 기도하는 일을 중단 없이 지속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실천하는 신앙되게 하소서.
19일 (토)	예배	1. 예배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거듭난 심령되게 하소서. 2. 찬양을 통해 마음의 집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사, 곡 이혁진
노 래 김브라이언



1. 날이 저물어 - 갈때 - 빈들 에서 걸-을 때 - 그때 가- 하나님의 때
2. 우리 모인이 - 곳에 - 주님 함께 계-시 네 - 누리 네- 아버지 은혜



내힘 으로안- 될때 - 빈손 으로걸-을 때 - 내가 고백해-여호와이레
적은 떡과물- 고기 - 내모 든걸드-릴 때 - 모두 고백해-여호와이레



주가 일 하시네 - 주가 일 하시네 - 주께 - 아끼지않-는 자에



게 주가 일하시네 - 주가 일하시네 - 신뢰하며걷는자 - 예게 -

◇ 주일모임안내

모임	안 내
오전예배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학생회	오전 11시 30분
어린이 주일학교	오전 9시
오후 성경공부	미정

◇ 주중모임안내

모임	안 내
화요 성경공부	미정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예배를 위한 예방수칙

예방수칙 준수방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합니다.

① 손 소독, ② 마스크 착용, ③ 거리유지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별 기도제목 나눔

조장님에게 기도제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하신 경우 '기도카드'를 사용바랍니다.

• '집에서 하는 교리공부' 신청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교재를 보내드리고 2개의 질문(요약과 적용)에 답하는 방식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 9월 제직세미나

일시: 금주 토요일(19일) 오전 10시

※ zoom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 제직모임

일시: 9월 20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9월 조장세미나

일시: 9월 26일(토) 오전 10시

• 직분자세미나

일시: 9월 27일(주일) 오후 2시

※ 주일학교/학생회 교사 분들도 참석바랍니다.

• 교인총회 준비

규약 수개정 공청회: 10월 18일(주일) 오후 2시

인선위원회: 10월 25일(주일) 오후 2시

예결산위원회: 11월 15일(주일) 오후 2시

KÓREJSKÝ ZBOR CÍRKVI BRATSKÉ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 / 담당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서일원 ▶ 제작: 김영수, 김은혜, 박시문,

박영환, 서제원 ▶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

9월 헌금위원

1부 예배

김은혜, 박시문

2부 예배

정민경, 신수린